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드립니다]

[옵트론텍(082210), '멀티카메라 수혜로 매출 급증']

2019.1Q 매출 705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 전년동기比 98%, 98% ↑

- ▶ 멀티카메라가 적용된 주 거래선의 주력제품 판매 호조로 광학필터 수주 급증
- ▶ 보급형 스마트폰 멀티카메라 적용 및 ToF 방식 3D 센싱 카메라 확대로 성장 지속

<2019-05-09> 옵트론텍이 트리플 · 쿼드 등 멀티카메라 확대로 1분기 호실적을 달성했다.

3D 광학솔루션 선도기업 옵트론텍(082210, 대표이사 홍사관, 임지윤)은 9일 공시를 통해 2019년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705억 원, 영업이익 7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7.9%, 97.7% 급증한 수치다.

회사측은 "주 거래선의 주력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수가 늘어나며 카메라 1대당 1개가 적용되는 자사 광학필터 제품 수주도 대폭 증가해 호실적을 견인했다"며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멀티카메라가 확대 적용되는 추세고, 최근 '3D 센싱' 기술이 적용된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며 ToF(Time of Flight) 방식 밴드패스필터 제품 수주 본격화가 기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스마트폰 Set Maker들이 '카메라' 기술력 강화에 힘쓰며 옵트론텍의 지속성장이 예견되고 있다. 최근 카메라 대수 및 카메라 화소 증가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독자기술인 AVI(Auto Visual Inspection)를 보유한 옵트론텍은 화소수 증가에 따른 이물질 이슈를 해소하며 수율을 높이고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센싱용 밴드패스필터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3D 센싱 카메라 적용이 확대될 경우 옵트론텍의 수혜로 직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옵트론텍 홍사관 대표이사는 "스마트폰 내 카메라 수가 증가하면서 국내 광학필터 시장을 선도하는 옵트론텍의 수주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며 "멀티카메라 적용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여 올해 실적 고속 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물론, 성장동력인 밴드패스필터와 전장용 카메라 렌즈 사업 부문도 강화해 올해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고자료]

< 옵트론텍 2019년 1분기 실적 (연결) >

(단위 : 억 원)

	2018.1Q	2019.1Q	YoY
매출액	357	705	97.9%
영업이익	35	70	97.7%
당기순이익	21	38	74.7%

***용어설명**

ToF(Time of Flight) : 적외선 등의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사물간 거리와 피사체의 심도 등을 계산할 때 사용.

3D 센싱 : 카메라가 사물을 인식하는 핵심기술로, 국내에선 옵트론텍이 유일하게 ToF 방식을 활용한 3D 센싱용 밴드패스필터(Band Pass Filter) 양산에 성공.

▣ 자료문의 : 옵트론텍 양승대 이사 (031- 8038-4720)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